



아람電子시스템代表 鄭榮春

어린 時節 發明人의 꿈 드디어 이뤄



〈鄭榮春 사장〉

어린時節 막연히 꿈꾸어 오던 發明人이라는 希望을 현실화시킨 執念의 젊은 發明人 鄭榮春씨(28·아람電子시스템 代表).

82年 뉴욕國際發明展에 「全相勵磁式 디지털 무정류자모터」를 出品, 현역 空軍下士의 몸으로 銀賞을 受賞하여 「頭腦韓國·發明韓國」을 世界에 떨치는데 일익을 담당한 鄭씨는 全南에선 이미 中學校 時節부터 소문난 發明人.

『어린時節 막연히 꿈꾸어 오던 發明人이라는 希望을 현실화하기 위

해 中學校에 들어가서 부터는 모든 사물을 무심히 넘겨본 적이 없다』는 鄭씨는 목포 마라야회中 3學年 재학중이던 74年 電子降水量 및 디지털 風向計를 發明, 全南道展에서 첫 入賞의 감격을 맛보았으며 이때 부터 본격적인 發明人의 수업에 들어갔다.

光州一高로 진학, 發明과는 동떨어진 학업을 이수하면서 계속 發明에 몰두하여 76년에는 74年 道展入賞 發明品을 보인해 國展에 出品하여 영예의 特賞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 80년에는 뉴욕展 銀賞 發明品인 全相勵磁式 디지털 무정류자모터를 創案·出品해 일반부 特賞을 차지했다.

『천재는 꾸준한 努力으로 소질을 일찍 開發한 것일뿐 선천적인 지능지수와는 무관하다』는 자신의 천재관을 피력하는 鄭씨는 出品展 이외에도 다양한 發明活動을 계속해 78年에 장거리 自動電話機 자동통계기인 D. D. D 자동제어장치를 考案해 特許를 얻은 것을 비롯해그동

안 2件的 特許와 5件的 實用新案을 얻어 이전 중견 發明人의 자리를 굳혔다.

지난 85年 11월에 設立한 아람電子시스템은 電子技術開發 勇역업체 84年 軍제대후 여러 企業에서 취업을 제의해 왔지만 취업보다는 發明人으로서 한알의 밑알이 되기 위해 전제산을 정리, 아람電子시스템을 設立했다.

그러나 아람 電子시스템은 경영난으로 벌써 몇차례의 도산 위기에 까지 이르렀다. 鄭씨의 무서운 執念과 두둑한 빚장이 아니었으면 門을 달아도 몇번은 달았어야 했다.

아람電子시스템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금년들어서만도 5個 企業에 技術을 提供하였으며, 현재 相談중인 企業만도 10餘社에 이르고 있다.

鄭씨의 꿈은 電子技術專門 研究所 設立. 鄭씨는 기필코 「韓國版 에드슨」이 되고야 말겠냐며 굳은 의지를 보여 주었다. 한마디로 의지의 發明人이었다. <㉞>

第28回 發明教室

6月 14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6月 14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28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150여명이 參席하여 성……○
- ……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는 東西洋行代表 李熙東씨와 아람電子시스템 代表 鄭榮……○
- ……春씨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東西洋行 代表 李熙東

불변잉크로 文具業界 새章 열어

『이 잉크로 쓴 글씨를 지울 수 있는 분에게는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물감 材料와 변하지 않는 잉크로 特許를 얻어 필기구 製作에 착수하여 成功한 發明企業人 李熙東씨(39·東西洋行 代表)의 자신에 넘친 첫 마디.

李씨는 최근 물이나 습기에도 變色되지 않고, 어떤 特殊藥品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不變잉크를 發明·生産하여 文具業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外國에 輸出하여 外貨도 벌어들이고 있다.

李씨가 開發한 이 不變잉크는 13가지의 特殊藥品과 特殊工程으로 製造되어 잉크가 서류에 닿거나 물이 묻어도 번지지 않고, 藥品을 사용하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 社會가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 銀行이나 會社 또는 家庭에서까지 현금대신 수표나 어음이 이용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변조사건이 발생하여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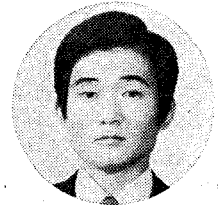
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방지책이 없을까하고 생각했던 것이 不變잉크 및 불변 필기구를 發明하게 된 동기.

李씨는 이 不變잉크로 特許 第18229號를 얻었으며, 國立工業研究所의 試驗結果 不變성이 立證되어 第1938號로 그 優秀성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제네바 國際發明展에서는 銀賞을·뉴욕 國際發明展에서는 銅賞을·그리고 第19回 發明의 날에는 商工部長官 表彰을 받았다.

또 이로 인해 지난 82年 5月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16의8에 東西洋行이란 會社를 設立하여 不變잉크의 생산에 들어갔다.

그리고 國內은 물론 世界 50餘個 國家에 輸出을 하고 있고, 技術提携 및 合作工場 建設 要講도 잇달아 받고 있다. 『폐수처리면에서도 다 찬가지지요. 50% 이상의 에너지節約의 效果를 가져오지요.』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製品이라는 李씨의 자랑.



〈李熙東 사장〉

李씨는 위조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우리의 財産과 信用을 保護할 뿐 아니라 에너지節約이라는 이중 效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不變잉크의 展望은 더욱 더 밝다고 말했다.

『現代에 살고있는 우리는 자신의 頭腦야말로 무한한 黃金이 들어있는 鑛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無限한 黃金 鑛脈을 開發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책임이니까요.』

李씨는 이 이야기만은 發明의 길을 걷고자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吳>